

일본 고로업계 재편 바람, 어디까지 불까?

이민근 수석연구원, 글로벌연구센터 (leemk@posri.re.kr)

목차

1. NSSMC, 일신제강의 자회사화 전격 발표
2. 日 고로업계, 3사 체제로 집약
3. 업계 내 위상 축소되는 고베제강
4. 고베제강發 추가 구조재편 가능성과 전망
5. 종합 및 시사점

Executive Summary

- 신일철주금(NSSMC)은 '16년 2월 1일 일신제강과 반제품 공급 및 일신제강을 자회사화하는 안에 대해 협의를 개시한다는 내용의 MOU를 전격 체결
 - 양사는 MOU상에 반영된 협력 시너지 강화방향, 자회사화 추진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 협의를 거쳐, '17년 3월에 자회사화를 완료할 계획
 - NSSMC가 일신제강을 인수하게 되면, 일본 고로업계는 JFE, 고베제강과 더불어 3사 체제로 집약돼, NSSMC의 내수시장 지배력은 더욱 강화될 전망
- MOU 발표 이후 시장의 관심은 3위 고로사인 고베제강의 독자 생존 또는 추가적인 구조재편 여부에 주목
 - 철강사업 매출비중이 42.3% 수준인 고베제강은 NSSMC의 일신제강 인수 발표에 따라 조강생산 기준으로 일본 고로업계 내 위상 축소
 - 고베제강은 철강사업 부문의 수익성에서도 '14년 매출액 경상이익률이 3.6%로 NSSMC (8.13%) 및 JFE (6.56%)에 비해 절반 수준에 불과
- 고베제강은 업계 구조재편과 철강경기 악화에 대응하여, 철강사업 구조조정 및 전력사업 강화 등 독자적인 생존전략을 모색, 추진 중
 - 주요 내용으로는 고베제철소 1고로 휴지 ('17) 및 가코가와제철소로 생산을 집약하고, 수익성이 높은 발전사업 분야 투자를 대폭 강화할 계획
 - 또한, 철강사업의 규모 축소에 대응하여, 알루미늄 및 銅, 기계, 전력사업 (IPP) 등 비철강 사업 확대 등을 통한 생존전략 추진 중
-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, 고베제강이 철강사업의 독자생존 전략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영 Risk 요인 극복이 필요
 - 조강생산 규모 열위, 경쟁사 대비 낮은 철강사업 수익성, 글로벌 공급과잉 상황 지속 등 독자 생존에 장애가 되는 다양한 대내외 Risk 요인들이 상존
 - 따라서, 일본 고로업계의 추가적인 구조 재편 여부는 고베제강이 장단기 대내외 경영 Risk 요인들을 향후 얼마나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
- 일본내 구조재편이 완료되면, 일본 철강업계는 해외 시장으로 경영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됨. 이에 따라 동남아 등 해외시장에서 한국 철강사들과의 시장 경쟁은 더욱 격화될 전망
 - 한국 철강업계는 향후 중-일 철강산업의 구조재편에 대응하여 생산성, 제품기술, 제조 원가, 글로벌 시장 네트워크 강화 등 체계적인 종합 대응방안 가속화가 요구

1. NSSMC, 일신제강의 자회사화 전격 발표

□ NSSMC는 '16년 2월 1일 일신제강과 반제품 공급 및 일신제강을 자회사화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를 개시한다는 내용의 MOU를 체결

○ 동 MOU 체결은 일신제강이 '15년 가을 NSSMC측에 '19년 구레(吳) 제철소 2고로 휴지 시 부족한 소재공급을 요청한 것이 계기

- NSSMC 신도사장은 세계 대부분의 철강사가 적자를 기록하는 위기적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순 소재공급 보다는 일신제강의 자회사화가 필요하다고 판단, 일신제강의 자회사화를 逆제안
- 양사는 이미 상호지분을 보유하고 있고, 사업 면에서는 STS 열연 상호 공급 및 STS 강관 제조위탁을 맺고 있는 우호적 협력관계

〈NSSMC 및 일신제강 회사 개요〉 (‘14년도 연결결산 기준)

구분	NSSMC	일신제강
주요사업	제철, 엔지니어링, 화학, 신소재, 시스템솔루션	제철 (철강제품 제조, 판매)
조강생산	4,732만톤/년	398만톤/년
매출액	5조 6,100억엔	6,175억엔
순이익	2,142억엔	169억엔
총자산	7조 1,579억엔	7,705억엔
종업원	8만 4,447명 (단독 2만 3,775명)	6,879명 (단독 4,128명)
지분제휴	일신제강 주식 8.3%	NSSMC 주식 0.4%

(자료) 각 사 유가증권 보고서

□ 양사는 MOU상에 반영된 협력 시너지 강화방향, 자회사화 추진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 협의를 거쳐 '17년 3월에 자회사화를 완료할 계획

○ 협력 시너지: 양사는 그룹차원의 보유 경영자원과 각 사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협력 시너지 창출 극대화를 도모

- NSSMC의 강점인 세계 Top 수준의 기술력 및 글로벌 대응력과 일신제강의 강점인 고객 및 시장 대응력을 상호 활용

○ 사업 협력: NSSMC는 일신제강을 자회사화 한 후에 Slab 공급 이외에도 조업, 기술, 원료, 기자재 조달, 현장 관리(안전, 환경, 방재, 정비) 등

다양한 분야에 걸쳐 사업 협력을 확대

- 또한, 자회사화를 통한 자금 및 자산의 효율적 활용으로 강인한 재무체질을 구축하고, 지속 성장 및 기업가치 최대화를 도모
- 자회사화 방법: 일신제강 주식의 공개매수, 제3자 할당으로 발행하는 보통주식 취득, 또는 이 두가지 방법을 혼합하는 방안 등을 검토
- NSSMC의 출자 비율은 현재로는 51~66% 범위에서 검토할 예정이며, 자회사화 이후에도 일신제강은 상장사로 지속 유지 계획
- 향후 추진일정: 양사는 '16년 5월 중에 정식 계약을 체결하고, 일신제강의 지분 인수 절차를 거쳐 '17년 3월에 NSSMC의 자회사로 편입할 예정

2. 日 고로업계, 3사 체제로 집약

- NSSMC가 일신제강을 인수하게 되면 일본 고로업계는 실질적으로 3사 체제로 집약되어, NSSMC의 내수시장 지배력은 더욱 강화될 전망
- 일본 고로업계는 90년대까지 6사 체제를 유지해 왔으나, NKK-KSC, NSC-SMI간 통합을 통해 '12년 이후 4사 체제를 유지해 왔음
- 양사간 협상이 잘 진행되어 NSSMC가 일신제강을 인수하게 되면, 일본 고로업계는 2강 1중 1약 체제에서 2강 1중 체제로 집약되고, NSSMC의 국내외 위상도 더욱 제고될 전망

〈일본 고로업계의 구조재편 추진 경과〉

6사 체제 (~2002)	5사 체제 (2002. 9)	4사 체제 (2012.10)	3사 체제 (2017.3 P)
신일철	신일철	NSSMC	NSSMC (일신제강)
스미토모금속	스미토모금속		
일신제강	일신제강	일신제강	JFE
NKK	JFE	JFE	
가와사키제철		JFE	
고베제강	고베제강	고베제강	고베제강

(자료) POSRI 종합

□ NSSMC의 일신제강 자회사화 MOU 발표로 시장의 관심은 3위 고로사인 고베제강의 독자생존 또는 추가적인 구조재편 여부에 주목

- 고베제강은 '02년 JFE 출범 이후 NSSMC와 상호지분 교환 등 우호적 협력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어, 불황기 때마다 NSSMC와의 경영통합 가능성이 대두되어 왔음

3. 철강 업계 내 위상 축소되는 고베제강

□ 철강사업 매출비중이 42.3% 수준인 고베제강은 NSSMC의 일신제강 인수 발표에 따라 조강생산 규모 기준 일본 고로업계 내 위상 축소

- 고베제강의 '14년도 연결 조강생산은 748만 톤으로 NSSMC의 약 1/6, JFE의 약 1/4 수준으로 미미하여, 불황 장기화 시 철강사업 수익력 기반 약화 우려
 - 철강사업 부문의 수익성은 '14년도 매출액 경상이익률이 3.6%로 NSSMC (동 8.13%) 및 JFE (동 6.56%) 에 비해 절반 수준에 불과
 - 또한, 고베제강의 철강사업 부문에 발전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면, 순수 철강사업 매출액 및 경상이익 수준은 더욱 낮은 것으로 추정됨 ('13년도 기준 발전사업 경상이익은 191억 엔으로 철강사업 총 경상이익 335억 엔의 57%나 차지)

〈일본 고로 3사의 '14년도 연결경영 실적〉

(만 톤, 억 엔)

	조강생산	매출액 (철강사업)	경상이익 (철강사업)	경상이익률 (철강사업)
NSSMC	4,732	56,100 (49,392)	4,517 (4,019)	8.05% (8.13%)
JFE	3,104	38,503 (28,738)	2,310 (1,885)	6.0% (6.56%)
고베제강	748	18,868 (7,978)	1,016 (287)	5.38% (3.6%)

(자료) 각 사 유가증권보고서

□ 고베제강은 업계 구조재편과 철강경기 악화에 대응하여, 철강사업 구조 조정 및 전력사업 강화 등 독자적인 생존전략을 수립, 추진 중

- 철강사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제1호 고로인 고베제철소 1고로를 '17년

휴지하고, 조강생산을 가코가와제철소로 집약할 예정

- 고베제철소는 조강생산 120만 톤의 Wire 생산 전문 제철소로, 제1고로 휴지 시 고베제강의 생산규모는 750만 톤에서 630만 톤 수준으로 축소 전망
- 고베제강은 철강사업의 규모 축소에 대응하여, 알루미늄 및 銅, 기계, 전력사업 (IPP) 등 비철강 사업 확대를 통해 생존전략 모색 중

〈고베제강의 비철강 사업 매출액 및 경상이익〉 (‘14년도, 억 엔)

구분	용접	Al, 銅	기계	Eng'	환경 솔루션	건설 기계	크레인	기타
매출액	944	3,308	1,591	490	681	3,110	711	760
경상이익	102	151	104	7	30	210	51	70

(자료) 고베제강 유가증권보고서

4. 고베제강發 추가 구조재편 가능성과 전망

- 일본 고로업계는 2000년대부터 대내외 경영환경 악화와 철강사업 수익성 급락시 업계 구조재편을 통해 위기상황을 극복
- '02년 NKK와 KSC의 경영통합, '12년 NSC와 SMI의 경영통합 배경을 보면, 대내외 경영환경 악화에 따른 경영실적 급락 및 부채증가가 주 요인
 - NKK- KSC도 버블경제 붕괴 후 '93년부터 '01년까지 매출액이 연속 감소하고, 동 기간 중에 인력삭감, 자산압축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 차례 (NKK 4회, KSC 5회)의 적자를 기록하여 독자 생존에 한계 봉착
 - NSC-SMI의 경우에도 '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NSC는 '09년 적자, SMI는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였고, 부채비율도 NSC ('06: 0.64→'11: 0.73), SMI ('06: 0.94→'11: 1.65) 양사 모두 증가
- 외부 경영환경 면에서도 NKK-KSC의 경우 '91년 버블경제 붕괴, 유럽발 철강업계 구조재편 확대, 닛산 자동차의 강판 집중구매에 의한 고로업계 협력 카르텔 붕괴 등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
 - NSC-SMI는 '08년 글로벌 금융위기, China Effect 소멸, 글로벌 철강 공급 과잉, 일본 내 6중고* 현상 등이 경영통합을 가속화

* 6重苦: 엔고, 고율의 법인세, FTA 체결지연, 노동규제강화, 온난화대책, 전력수급 불안

□ 따라서, 고베제강도 최근 대내외 경영환경 감안시 독자생존 전략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영 Risk 요인 극복이 필요

- 조강 규모, 철강사업 수익성, 글로벌 공급과잉 상황 지속 등 독자 생존에 장애가 되는 다양한 Risk 요인들이 상존

〈고베제강의 중단기 대내외 경영 Risk 요인〉

구분	주요 RISK 요인
조강규모	○ 일본 고로 3사 중 조강 생산규모 최하위로 규모의 경쟁력 확보 애로
공급과잉	○ 동북아를 중심으로 글로벌 철강 공급과잉 상황 지속에 따른 철강사업 수익 환경 악화
경기침체	○ 글로벌 경기침체 속에 아베노믹스 효과 약화로 내수시장 둔화 가능성 증대 - 안전 자산 선호에 따른 엔고 전환시 수출 경쟁력도 악화 전망

- 향후 일본 고로업계의 추가적인 구조 재편 여부는 고베제강이 중단기 대내외 경영 Risk 요인들을 얼마나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

5. 종합 및 시사점

□ 일본 고로업계는 그 동안 Player 과다와 제철소 분산 등의 업계 구조적 문제가 글로벌 경쟁력 약화의 주요 원인으로 판단

□ 따라서, 향후 일 고로업계의 추가적인 경영통합과 제철소 집약화가 지속 추진된다면, 한-일 철강 업계간 경쟁은 더욱 본격화 될 전망

- 특히, 일본 내 구조재편이 완료되면, 일본 고로사들은 해외 시장으로 경영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됨. 이에 따라 동남아 등 해외시장에서 한국 철강업체와의 시장 경쟁은 더욱 치열해 질 것으로 전망

□ 한국 철강업계는 향후 일본 고로업계의 추가 통합 가능성과 중국 철강 산업의 구조재편 등에 따른 해외 시장 경쟁심화에 적극 대응할 필요

- 중-일 철강산업 구조재편에 대응하여 생산성, 제품기술, 제조 원가, 글로벌 시장 네트워크 강화 등 체계적인 종합 대응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필요

이 자료에 나타난 내용은 포스코경영연구원의 공식 견해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.

[참고자료]

[보고서]

NKK와 가와사키제철의 경영통합에 대한 고찰, 증권경제학회년보, 2014.3

[비즈니스잡지]

고베제강, 독립경영의 생존전략, 주간동양경제 2014.5

고베제강소, 독립독보의 생존전략 대책, 四季報 ONLINE 2014.5.17

중국 감속으로 철강업 빙하기 돌입, 주간다이아몬드 2016.1

신일철-주금합병으로 시작되는 철강업계 재편, Diamond on line, 2011.2

[일본 미디어]

일본경제신문, 일간산업신문, 철강신문 등의 관련 기사

[홈페이지]

NSSMC, JFE, 일신제강, 고베제강,